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여성해방의비극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여성해방의비극
1906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1906 년

차례

관건은균등화가아닌, 평화와조화	3
행복의근원을빼앗아간해방?	4
사랑을두려워할때해방은없다	5
여성의자유와남성의자유, 깊은연관성	5
향유하는만큼만자유롭다	6
적대적이원론을극복해야완성된다	7

커튼을없애면가능하다는것이다. 그녀의해박한지식에, 남성은처음에는위축되지만차츰호감을느끼게된다. 두젊은남녀는서로호감을느끼지만, 시종일관담백한관계를유지한다. 로맨스라고는없는두사람의관계는선을넘지않는다.

그러나나는솔직히그여의사가꿈꾸는돌벽과돌마루처럼차디찬남녀간의, 이‘새로운아름다운관계’를전혀위대하다고느끼지않는다. 이런단정함과질서정연한명료함보다는낭만주의시대의로맨틱한발라드, 돈주앙, 달밤의납치극, 줄사다리, 아버지의저주, 어머니의탄식과분개한이웃의소란스러움이더매력적이다. 어떤제약없이자연스럽게오가는감정이아니라면, 그것은사랑이아니라손익을염두에둔거래에불과한것이다.

적대적이원론을극복해야완성된다

구원은, 미래를향해힘차게발을내디딜때찾아온다. 우리에게필요한것은낡은전통과구시대의관행을던져버리고전진하는것이다. 여성해방운동은이런방향의첫걸음을내딛은것에불과하다. 여성해방운동은그두번째걸음을내딛기위해충분한힘을비축해야할것이다. 동등한시민투표권행사는바람직한요구사항이지만, 진정한해방이시작되는곳은투표장이나법정이아니다. 다름아닌여성의영혼이다. 역사는말한다. 피지배자들이지배자에게서진정으로해방된것은, 어떤시대에도그들자신의노력에의한것이었음을. 자유는스스로‘자유로워질’능력이있을때주어진다는교훈을새길필요가있다. 그러려면내부개혁, 고평면견과전통, 관습의무거운짐을벗어버려야한다. 삶의모든영역에서남성과동등한권리요구는물론정당한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사랑하고사랑받을권리다. 부분적인여성해방이여성의진정하고완전한해방이되려면, 여성으로서사랑받고, 아내가되고어머니가되는것이노예가되고종속되는것이라는우스꽝스러운공식을버려야한다. 여성은남녀이원론이란불합리한개념을버려야한다. 남성과여성이적대하는두개의세상을형성한다는이원론적관념에서벗어나야한다는것이다.

편협함은분리를낳지만, 관대함은화합으로이끈다. 좀더너그럽고관대해지자. 여성과남성은정복자와피정복자가아니다. 관계를형성하는것은무한한헌신이다. 헌신은스스로를한층풍부하게하고확신을주며, 보다나은방향으로이끈다. 이런태도만이공허한마음을채워주고여성운동의비극적인결과를무한한기쁨으로승화시킬것이다.

운현상때문이었다. 다행히엄격한청교도적시선도모성이라는선천적열망을없앨수는없었다. 그러나여성의자유는남성의자유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해방된많은여성동지들은자유속에서태어난아이가사랑과헌신을원한다는사실을간과한듯하다. 아이자신을둘러싼남자와여자, 모든사람들의사랑과헌신을말이다. 현대여성과남성의삶에서, 비극은인간관계에관한이런편협한개념에서비롯된다.

향유하는만큼만자유롭다

여성들은종종풍부한지성과아름다움을갖출것을강요받고는한다. 현대여성들은이런속성이자신의존재를온전히드러내는데걸림돌이된다고생각한다. ‘죽음이갈라놓을때까지’라는고대성경속의결혼문구가 여성에대한남자의주권, 즉남자의번덕과명령에대한여성의절대적복종, 여성의완전한의존을함축하는장치라는사실이알려진지한세기도되지났다. 기존의부부관계가여성을남자의중으로, 출산의도구로전락시켰다는사실은끊임없이그리고명백하게증명되어왔다. 그러나우리는해방된여성들중상당수가여성의본성을훼손하고구속하는도덕적·사회적편견때문에고립된독신생활을견디는것보다, 많은단점에도불구하고결혼을선호하는것을봐왔다.

여성들은이사실을명심하자. 여성의자유는여성스스로해방되는능력을향유할수있는곳까지확대된다는사실말이다.

수많은진보적여성들이이런모순에부딪히는것은해방의의미하는바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기때문이다. 진보적여성들은스스로외부의압박에서자유로워짐으로써모든것을성취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윤리·사회적관습, 개인의삶과성장에훨씬위험한내부적압박은그대로방치했다. 이런것들은과거여성들의머리와마음에새겨진것만큼이나, 가장활동적인여성해방운동가들의머리와마음에도똑같이큰자리를차지했다. 이런내부의압제자들이여론형태로나타나든, 혹은엄마·숙모·이웃·아빠·고용주혹은징계위원회가말하는형태로나타나든상관없다.

이런모든부조리에저항하고, 감시자에게대항하고자기영역에서굳건히설수있어야해방된여성이라할수있다. 또한삶의가장큰선물인사랑할자유, 여성고유의능력인출산의자유를거리낌없이주장할수있어야해방된여성이라할수있다.

한현대소설가는해방된여성의이상형을자신의책에묘사했다. ‘그이상적인해방여성’은젊은여의사로, 가난한이웃들에게무료로약물제공하는자애로운이웃이자자녀들에게는지혜로운어머니다. 소박하고실용적인웃차림을즐기는그녀는지인인젊은남성에게박테리아와바이러스를전멸시키는방법에대해설명한다. 마루와벽을둘로만들고, 양탄자와

[엠마골드만이 1906 년에쓴이글은아나키스트인 E. 아르망의번역으로 2003 년잡지 <아곤 Agone> 에게재됐으며,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의자매지인격월간 <마니에르드부아 Manière de voir> 2011 년 8·9 월호에재수록됐다.]

먼저나는내가주장하려는바를말하고싶다. 모든정치·경제이론, 계급과인종간차이, 여성의권리와남성의권리간인위적경계가없는, 오히려서로다른점들이잘어울려, 또하나의완전한개체를완성하는지점이있다는사실을말이다.

평화와조화를위해반드시개인간의피상적균등화가필요한것은아니다. 남녀간, 개인간평화와조화를이루기위해개인간특성을제거할필요는없다는것이다. 현재우리가고찰하고해결해야할문제는자신의정체성을지키면서타인과화합하는것, 타인과깊은교류를하면서자신의고유한특성을유지하는것이다. 이는대중과개인, 진정한민주주의와진정한개인주의, 그리고남성과여성이그어떤적대감이나갈등없이만날수있는방법에관한것이다.

관건은용서가아니라, 이해다. 마담스타엘이자주인용하는“모든것을이해하는것은모든것을용서하는것이다”라는말은내게감흥을주지못했다. 타인을용서하는것은바리사이 Pharisees(기원전 1 세기 ~ 기원후 1 세기, 극도로엄격한율법해석과실천을내세우던학파또는그학파에속한사람들-역자주) 의권위같은우월한개념을연상시킨다. 이해만으로도충분하다. 이는여성해방에대한내견해와모든여성에대한여성해방의영향을부분적으로구현하는말이다.

관건은균등화가아닌, 평화와조화

여성해방은여성에게, 진실로인간적인존재가될가능성을부여한다. 자기확신과활동에의요구는, 가장완전한자기자신의표현으로귀결될것이다. 따라서우리는보다큰자유로가는길목에잔재하는굴종의시대와노예제도의흔적을제거해야한다.

이는여성해방운동의본래목적이었다. 그러나현재까지의결과를보면, 이목적이오히려여성을고립시키고여성에게서행복을앗아갔다. 외적해방은, 현대의여성을기하학적형태로길러진화초처럼인공적인존재로만들어버렸다. 소위‘지성인’들중에이런‘인공적여성’이많다.

“여성에게자유와평등을!”고상하고용감한현대의지성인들이이말을처음던졌을때, 그때느꼈던희망과열망은형언할수없다. 여성스스로가운명을개척해가는새로운세계에, 태양이찬란한빛을발하며영광스럽게떠오를것이다. 이는편견과무지로부패한세계에맞서기위해모든위험을무릅쓰는선각자들의열정, 용기, 인내, 끊임없는노력에부합한목적이

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가정에서의 편견과 구속을, 공장에서의 편견과 구속으로 맞바꿨을 뿐이다. 그 결과, 여성들은 과연 어떤 독립을 쟁취했는가?

내 희망은 해방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해방은 완전히 실패한 상태다. 여성이 진실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방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표현이다. 여성해방을 통해 여성은 무엇을 얻었는가? 일부 국가에서의 참정권이다. 이 결과로 수많은 여성투표주창자들이 연설했듯, 정치권이 정화됐는가? 답은 물론 'No'다. 지금이야말로, 건전하고 명확한 사고력을 가진 이들이 보수적인 어투로 '정치계의 부패'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다. 정치계의 부패는 다양한 정치권인사의 윤리, 또는 도덕적 해이와는 무관하다. 부패의 원인은 순전히 물질적인 것이다. 정치는 '주는 행복보다 취하는 행복이 더 크다', '혈값으로 사서 비싸게 되팔아라', '더러운 손이 다른 손을 깨끗하게 한다' 등의 원칙이 통하는 상업적 논리를 반영한다.

행복의 근원을 빼앗아 간 해방?

여성해방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위치를 부여했다. 여성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교육은 여성에게 경쟁력을 부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성은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에도 달하기 위해, 매번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한다.

게다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도 달한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교사, 여의사, 여성건축가, 여성엔지니어들이 동일직종의 남성들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도, 보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런 '가짜 평등'에도 달한 여성들은 대부분 육체적·정신적 희생을 담보로 했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에게 변화라고는, 그들이 편견과 구속을 받는 장소가 가정에서 공장, 상점, 사무실 등으로 바뀐 것이 전부다. 그 결과, 여성들은 과연 독립을 쟁취했는가? 많은 여성들이 고된 일과를 마친 후 따뜻하게 반겨줄 이 한명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진실로 영광스러운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수백명의 젊은 여성들이 계산기와 재봉틀, 타자기로 '독립'을 이어가는 데 지친 나머지, 결혼을 돌파구로 여기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중산층의 젊은 여성들이 부모의 숙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간신히 밥벌이를 하는 수준의 독립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 즉 큰 목소리로 여성에게 독립 생활에의 환상을 심어 주는 것은, 사랑과 모성이라는 이성의 본능을 억누르는 방편, 그것도 별반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에 불과하다.

여성독립과 여성해방에 대한 편협한 기존의 개념들, 여성이 지닌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의 사랑을 가로막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사랑이 여성에게서 자유와 독립을 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사랑과 모성의 기쁨이 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불안 등의 감정은 해방된 현대 여성에게 독신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렇게, 삶은 지나간다.

사랑을 두려워할 때 해방은 없다

여성해방은 연인이거나 아내로서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느끼는 바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현대 여성은 지식적 인 측면에서 이전 세대의 여성을 앞서 간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본질적인 삶의 결핍을 느낀다. 다른 아닌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일하는 로봇이 돼 버렸다. 기존 제도를 파괴하고, 보다 진보적인 제도로 대체하려는 운동에는 지지자들이 있다. 지지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근본적인 사상을 옹호하지만, 일상에서는 평범한 속물에 불과하다. 그들은 존경을 갈구할 뿐이다. 그들은 "소유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가 자신의 머리핀 하나만 가져가도 분개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회주의자', 나아가 '아나키스트'라고 주장한다.

여성의 자유와 남성의 자유, 깊은 연관성

여성해방 운동가들 중에도 이런 속물들이 있다. 신출내기 기자와 삼류 문인들은 해방된 여성의 모습을 왜곡시켰다. 예를 들어 조르주 상드 같은 여성해방 운동가들이 마치 도덕성을 결여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해방은 반사회적인 삶,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 사치스러운 삶과 동의어가 돼 버렸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이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런 여성해방 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에 너지를 쏟는다. 여성이 남성의 숙박 아래서 신음하던 동안, 여성은 선량할 수도 순수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여성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을 때 얼마나 선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영향력이 사회의 모든 기관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지 여성해방 운동가들은 증명하려 했다.

진정으로 해방으로 가는 위대한 노정에서 자유를 직시할 수 있는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청교도적이고 위선적인 관점으로 남성을 방해자로 여기거나,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자신의 사생활에서 추방해 버렸다. 남성을 아이의 아버지로 용인한 것은, 아이 아버지가 없으면 살기 어려